

『문법 교육』 제21호(2014.8.), 한국문법교육학회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담화기능 분석

이숙

차례

1. 서론
2. 인지적 배경과 언어 표현
3. 모습과 배경의 반전 현상과 윤곽 효과
4. 분석 결과와 학습자 오류에 대한 해석
5. 마무리

1. 서론

이 논문은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기능을 밝히고,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 현장에 ‘-는데’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표를 둔다. 연결어미 ‘-는데’는 사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연결어미로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도 초급 단계에서부터 제시되는 연결어미에 속한다.

이윤진(2002)에 따르면 언어권별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빈도를 조사한 결과 학습자들의 ‘-는데’ 사용은 ‘-고, -지만, -아서, -니까, -면’ 등과 함께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이는 연결어미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효정(2001)에서는 한국어 학습자들의 말하기 영역에서 연결어미 ‘-는데’의 사용 빈도가 연결어미 ‘-고’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민윤숙(1995)에서는 한국어가 모국어인 중학생의 연결어미 사용

빈도 분석에서 <고> -<아서> -<면> -<지만> -<는데>의 빈도 순서를 보이고 있어서, 연결어미 ‘-는데’가 한국어 학습자와 모국어 화자에게 모두 빈도 높게 사용되는 연결어미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연결어미들의 용법은 한국어 학습자들의 언어습득 단계가 발달되면서 차츰 완성되는 단계를 보이지만, ‘-는데’ 용법은 중급 혹은 고급의 발달 단계에 이르는 학습자들에게서도 오류가 자주 나타나는 연결어미에 속한다.

강소영(2012)에 따르면 한국어 학습자들이 연결어미의 용법 습득에서 -는데>니까>아서>면서>고의 순서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어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연결어미 ‘-고’의 용법은 습득이 가장 쉬운 반면에 ‘-는데’의 용법 습득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는데’로 연결되는 두 문장의 의미 관계가 대립 관계, 설명 관계, 혹은 이유 제시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이 ‘-는데’ 용법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언어 교수자 입장에서도 학습자들이 ‘-는데’ 용법에서 오류를 생산하였을 때에 오류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명시적인 문법 설명 방안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학습자의 오류가 화석화 되는 현상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는데’의 의미 기능에 대한 기존 분석을 검토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에 응용될 수 있는 의미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1.1 ‘-는데’의 교육 현황

성진선(2002)에 따르면 국내 주요 5개 대학기관에서 출간된 한국어교재를 중심으로 연결어미교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결어미 ‘-는데’는 대부분 초급 단계에서부터 제시하기 시작하여 중급 단계에 이르기까지 나선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는데’로 연결되는 선·후행절의 의미관계가 앞서 언급한 대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시되기보다는 문맥 상황을 달리하면서 여러 단계로 나뉘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지영(1998)에서 제시하고 있는 ‘-는데’의 교실 수업 모형을 살펴보면, 먼저 ‘-는데’의 올바른 형태적 용법을 돕기 위한 이형태 ‘-(으)ㄴ데’의 설명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는데’의 의미 파악을 위해서는 다양한 문맥 관계에 놓인 두 문장을 제시한 후에 기계적 연습을 통해 연결어미 ‘-는데’를 사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시키는 연습 단계를 제시하였다. 그 후 생산 단계에서는 선행절을 제시하고 후행절을 완성시킨다든지 혹은 후행절을 제시하고 선행절을 완성시키는 통제적인 연습 단계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계적 연습과 통제된 연습을 통해서도 다양한 문맥 의미를 만들어내는 ‘-는데’의 의미 기능을 파악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최주희(2013)에서도 지적했듯이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는데’의 의미 기능을 세분화시킬 때, 각 의미 기능의 경계가 모호하여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시키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더욱이 ‘-는데’의 의미 기능에 대해 한국어교육 문법서에 공통적으로 배경 설명의 기능이 제시되어 있지만, 배경 기능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학습자들은 ‘-는데’의 배경 용법을 다음과 같이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오류를 낳게 되는 것이다.

- (1) 가. *이 음식이 너무 짠데(√짜서) 맛이 없어요.
 나. *겨울에는 날씨가 추워서 대부분 집에서 지내는데(√지내면서) TV를 본다.
 다. *취직하지 못하는데(√못하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다.

1.2 ‘-는데’의 의미 기능에 대한 선행 연구

이소현(2012)에서는 ‘-는데’의 기본 의미를 7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그 외 기타적 의미를 10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처럼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는데’의 용법 설명에서 선·후행절의 문맥의미에 의존하는 양상은 국어학계에서도 ‘-는데’의 의미 기능 분석이 문맥 의미에 기대어 이루어진 것과 연관된다. 국어학계에서 이루어진 ‘-는데’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관점은 ‘-는데’의 선·후행절의 문맥 의미를 기술하는 방식이다. ‘-는데’의 기능을 풀이풀 이음토씨(설명형 연결어미)로 본 최현배(1937)를 필두로 하여, 허웅(1980), 남기심외(1985) 서정수(1994) 등 대부분의 국어 문법 설명이 동일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즉 ‘-는데’의 선행절은 후행절에 대해 대조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이유 혹은 배경 등을 설명하는 의미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보았다.

(2) 가. 물건은 좋은데 값이 너무 비싸다. (대립)

나. 오늘은 바쁜데 내일 만납시다. (이유)

다. (그는) 아까 너 만난다고 나갔는데 아직 (그를) 못 만났니?

(배경제시)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이들 의미는 ‘-는데’로 연결되는 선·후행절 간의 문맥의미(contextual meaning)일 뿐이지 ‘-는데’로 인해 표현된 의미가 아니다. 그 증거로 위의 예문에서 사용된 연결어미 ‘-는데’가 다른 연결어미로 대체되거나 혹은 출현하지 않더라도 선·후행절 간의 의미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가. 물건은 좋지만 값이 너무 비싸다. (대립)

나.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만납시다. (이유)

다. (그는) 아까 너 만난다고 나갔어. 아직 (그를) 못 만났니?

(배경제시)

따라서 (2)의 예문에서 선·후행절 간에 나타나는 문맥의미는 ‘-는데’에 의해 기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두 번째 관점은 ‘-는데’의 화용적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서 ‘-는데’ 연결문이 담화상에 차지하는 화용 기능을 설명하려는 맥락 차원의 접근법이다. 이 관점의 대표적 예는 이기동(1979), 장경희(1995)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는데’의 핵심적인 기능을 배경 설정소(introductory, suggestive function)로 보고 ‘-는데’가 보이는 화용상의 기능을 설명하였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는 ‘-는데’의 의미 기능을 선·후행절 사이에 나타나는 다양한 문맥상의 의미로 제시했던 것에 반해, 이들 연구에서는 ‘-는데’로 연결되는 선·후행절 사이에 배경과 모습의 관계를 유지하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구분된다.

특히 장경희(1995)에서는 ‘-는데’ 구문에서 배경과 모습의 관계가 형성되는 원리를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하나는 공간의 크기에 의해 배경과 모습이 형성되고, 둘째는 공간과 시간의 우연성에 의해 형성되기도 하며, 셋째로는 유의미한 모습의 형상성을 구성하지 않은 채 미완성의 배경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장경희(1995)의 분석에는 ‘-는데’로 나타나는 배경의 화용적 기능을 강조하면서도, 배경의 개념을 후행절 사건이 속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는데’로 표현되는 배경을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것은 ‘-는데’의 다양한 의미 기능을 관통하는 화용적 특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예컨대 앞선 (2-3)의 예문에서 동일한 문맥 관계에 놓인 선·후행절이 어느 경우에는 (2)에서와 같이 ‘-는데’에 의한 배경 관계로 표현되고, 어느 경우에 (3)에서와 같이 다른 종속 연결어미에 의한 의미 관계로 표현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설명에 한계가 나타난다.

2. 인지적 배경과 언어 표현

이 절에서는 사건의 시·공간적 배경 외에 인지적 개념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자. 인지적 개념의 배경은 처음 형태심리학(Gestalt psychology) 이론에서 다루어진 개념으로 알려져 있다. 형태심리학은 인간이 시각을 통해 형태를 인지할 때에 작용되는 심리에 대한 연구이다. 형태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인지 심리에 집단성의 법칙,¹⁾ 단순화의 법칙,²⁾ 모습과 배경의 법칙 등의 원리가 작용한다고 보았다. 이 중에서 모습과 배경의 법칙이란 인간이 사물의 형태를 파악하는 데에는 모습과 배경의 비대칭적 인지 심리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예컨대 일정한 환경을 이루어 긴밀하게 짜여있고 충실한 내용을 나타내며 비교적 강한 인상을 주는 것을 모습(figure)으로 인지하고, 짜여짐이 성글고 비교적 약한 인상을 주는 것은 배경(ground)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지적 개념의 배경이란 모습과 대비적인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그리고 시각 심리에 작용되는 모습과 배경의 인지적 심리가 언어 표현에도 구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Talmy(2000)는 모습과 배경의 비대칭적 인지 심리가 문장 발화에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고, 표현 대상의 사물들이 모습과 배경으로 인지되어 문장에서도 비대칭적인 통사 요소로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4) 가. 책상 위에 연필이 있다.

나. 연필이 책상 위에서 떨어졌다.

1) 집단성의 법칙이란 사람들이 형태를 지각할 때 개개 단위를 유사한 시각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 끼리 그룹을 지어서 보려 하거나, 근접되어 있는 시각 요소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해서 보려고 하는 경향을 이른다.

2) 단순화의 법칙은 연관성이 없는 구성요소들을 지각하기 쉬운 형태로 집단화하려는 경향 때문에 형태를 단순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이다.

위의 (가)는 정적 상태를 기술하는 문장이고, (나)는 물체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문장이다. 그리고 (가)에서는 정적이고 보다 넓은 공간성을 차지하는 책상을 배경으로 인식하고 움직임의 변수성이 높고 적은 공간성을 가진 연필을 모습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에서도 움직임의 대상체인 연필을 모습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이동의 기준점이 되는 책상을 배경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리고 (가-나)에서 모두 모습에 해당하는 연필은 주어의 통사 요소로 표현되는 반면 배경은 부사구로 표현된다. 이처럼 동일 사건에 관여하는 사물들을 인지하고 표현하는 방식에 비대칭적 심리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복합문 구성에도 모습과 배경의 비대칭적 인지 심리가 구현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특히 Talmy(2000)에서는 일정한 의미 관계를 갖는 두 사건에서 어느 것을 배경으로 인지하고 또 다른 어느 것을 모습으로 인지하는 데 작용되는 원리는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계기적으로 일어나는 두 사건에서는 선행된 사건이 배경으로 인지되고 후행 사건이 모습으로 인지되어 통사적으로는 선행 사건을 후행 사건에 종속되게 표현한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인-결과 관계에 놓이는 두 사건에서도 원인 사건이 배경으로 인지되고, 결과 사건이 모습으로 인지된다. 또한 시간폭이 큰 사건을 배경으로 인지하고 그 안에 포함된 시간대에서 일어난 사건을 모습으로 인지한다. 그리고 사건 발생의 조건이 되는 사건을 배경으로 인지하고, 그 조건에 따라 후속되는 사건을 모습으로 인지한다. 그 외에도 기대되었던 사건이 기대치 않게 일어난 사건으로 대치되었을 때, 기대되었으나 일어나지 않은 사건은 배경으로 인지하는 반면에 기대치 않게 일어난 사건은 모습으로 인지한다는 것이다.³⁾

3) Talmy(2000)에서는 이들 원리를 각각 Sequence Principle(계기성의 원리), Inclusion Principle(시간폭의 원리), Contingency Principle(조건의 원리), Substitution Principle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복합 문장의 의미관계가 (가)와 같은 통사구조로 실현될 수 있어도 (나)와 같은 통사구조로 실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5) 가. She slept until his arrival.

나. *He arrived immediately-before-the-end-of her sleeping.

(6) 가. He had two affairs during his marriage.

나. *He was married through-a-period-containing two affairs
of his having two affairs.

(7) 가. He's playing instead of working.

나. *He's not working in-replacement-by playing.

(Talmy 2000, p.326)

즉 (5)에서 기술하고자 하는 사건은 ‘그녀는 그가 도착할 때까지 잤다’와 같은 구문으로는 표현되지만, 그 반대로 ‘그는 그녀의 취침이 끝나기 바로 전에 도착했다’와 같은 구문 표현이 어색하다는 것이다. (6)에서는 ‘그는 결혼 기간 동안 두 번의 바람피운 사건이 있었다’의 표현 대신에 ‘그는 두 번 바람피우는 기간 동안 결혼 상태에 있었다’와 같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7)에서는 ‘그는 일하지 않고 놀고 있다’의 표현이 적절하고, 이와 반대로 ‘그는 놀고 있음으로써 일하지 않고 있다’와 같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에서도 위의 예문들과 동일한 의미관계를 가진 두 사건들이 다음과 같은 복합문 구조로 실현되는 사실을 보자.

(8) 가.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대치의 원리)로 표현했다.

- 나. 머리가 아파서 일찍 잤다.
 다. 길을 걷다가 친구를 만났다.
 라.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위의 예문에서 보듯이 한국어에서도 주절과 종속절로 구현되는 사건들의 의미 관계 사이에 Talmy가 주장하는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나)에서는 계기성을 갖는 두 사건에서 먼저 일어난 사건이 종속절로 표현되고, (다)에서는 서로 다른 시간폭을 갖는 두 사건을 표현할 때, 긴 시간폭을 갖는 사건이 종속절로 표현되었다. 그리고 (라)에서는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조건이 될 때 조건에 해당되는 사건이 종속절로 표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위와 같은 두 사건의 의미 관계를 표현할 때, 종속절로 표현되는 사건이 일정하다는 것은 인간이 두 가지의 사건을 표현할 때 배경과 모습의 구도로 인지하는 심리가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위의 예문에서 (가-나)는 ‘-어서’로 연결되었고, (다)에서는 ‘-다가’, (라)에서는 ‘-면’ 등의 연결어미가 실현된 것은 두 사건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동시에 배경과 모습의 인지적 관점을 실현시킨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음의 예문쌍에 나타나는 종속절이 ‘-는데’로 표현되었든지 혹은 다른 종속어미로 표현되었든지 간에 종속절 사건이 주절 사건에 대한 배경 관계로 인지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9) 가.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났어요.
 나. 길을 가는데 옛 친구를 만났어요.

- (10) 가. 학교 다닐 때 그 사람 이름은 들어봤지만 친하지는 않았어요.
 나. 학교 다닐 때 그 사람 이름은 들어봤는데 친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면 ‘-는데’의 용법은 다른 종속 연결어미의 용법과 어떻게 구별

되는 속성을 갖는 것일까?

3. 모습과 배경의 반전 현상과 윤곽 효과

앞서 언급한 대로 Talmy(2000)는 모습과 배경의 비대칭적 인지심리가 언어 표현에 실현되는 것은 거의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보편적인 문법 현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모습과 배경에 대한 인지심리가 언제나 고정 불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려해보자.

다음은 모습과 배경의 모호성을 설명하는 그림으로 잘 알려진 덴마크 심리학자 Rubin의 물잔 그림이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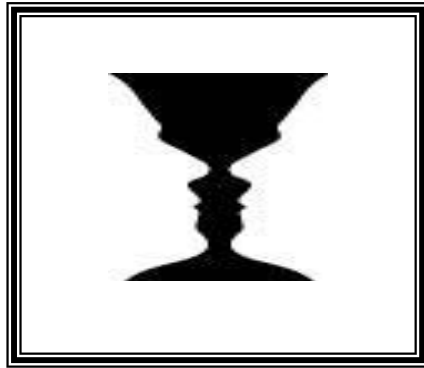
<그림 1>

(11)의 그림에서 가운데의 물잔 모양을 모습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흰색 영역의 모습이 배경으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 반대로 좌우 대칭된 옆얼굴을 모습으로 인지하는 경우에는 검은색 영역이 배경으로 사라져 형태를 갖춘 모습으로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관점에 따라 배경과 모습이 반전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뇌의 어느 부분이 더욱 활성화 되는지에 따라 모습 영역을 인지하는 경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해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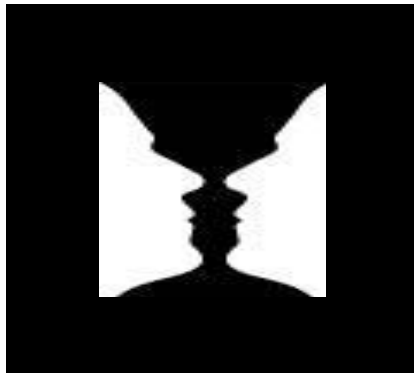
그런데 (11)의 그림에서 하나의 모습 영역이 다른 모습의 영역을 포함하도록 주변 구역을 확장하여 보자.

(12) 가.



<그림 2>

나.



<그림 3>

<그림2>는 옆얼굴 영역이 물잔 주변 영역으로 확장된 그림이고, <그림3>은 물잔 영역이 옆얼굴 주변으로 확장된 그림이다. 그러자 <그림1>에 나타나던 모습과 배경의 반전 현상이 사라지고, <그림2>에서는 물잔이 보다 확실하게 모습으로 인지되고, <그림3>에서는 옆얼굴이 모습으로 구별되게 인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모습의 주변을 채우는 윤곽이 설정되면 모습은 배경과의 인지적 경쟁 구도에서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윤곽은 모습에 해당되는 정보를 고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3.1 윤곽의 담화 기능

본고에서는 한국어의 연결어미 ‘-는데’의 기능이 바로 모습에 해당하는 정보의 주변 구역을 윤곽으로 설정하는 것과 같은 화용 기능을 갖는 것으로 본다. 이는 ‘-는데’가 의미적 종속관계를 표현하는 연결어미들과는 다른 통사적 속성을 보이는 것에서 증거를 찾아볼 수 있다.

다음에서 동일한 사건이 (가)와 (나)의 구문으로 각각 표현될 수 있음을 보자.

(13) 가. 길을 가다가 옛 친구를 만났어요.

나. 길을 가는데 옛 친구를 만났어요.

위의 문장에서 종속절에 나타나는 연결어미의 종류와 상관없이 선·후행절의 문맥 관계는 동일하다. 하지만 (가)에서는 선·후행절 사건의 시상관계를 표현하는 종속연결어미 ‘-다가’로 실현되었고, (나)에서는 ‘-는데’로 실현된 예이다.

이제 (가-나)의 선행절은 일명 분열문 구조(It-cleft structure)라고도 불리우는 강조구문에서 초점 위치에 허용되는 여부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

는 것을 보자. 강조구문이란 무표적인 정상 문장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성분을 ‘~는 것은 X이다 (It is X that~)’의 구문에서 X 위치에 놓이도록 하는 구문이다. 그런데 이때 종속 연결어미에 이끌리는 (가)의 선행절은 초점이 놓여지는 X 위치에 나타날 수 있지만, (나)의 ‘-는데’ 선행절은 초점 위치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4) 가. 옛 친구를 만난 것은 길을 가다가이었어요.

나. *옛 친구를 만난 것은 길을 가는데이었어요.

연결어미 ‘-다가’에 이끌리는 종속절이 초점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은 연결어미 ‘-다가’의 본유적인 의미 기능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반면에 연결어미 ‘-는데’의 경우에는 후행절 정보의 인지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담화 기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스스로 초점 정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종속 연결어미에 이끌리는 종속절은 무엇, 어떻게, 왜 등의 의문사가 나타나는 질문에 정보성을 갖는 대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는데’절은 신정보(new information)를 요구하는 질문에 대답으로 사용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15) Q: 옛 친구를 어떻게 만났어요?

A: 가. 길을 가다가요.

나. *길을 가는데요.

위의 예에서 보여주듯이 해당 질문과 동일한 문맥 관계에 놓인 사건을 종속 연결어미 ‘-다가’로 대답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는데’로 대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는데’에 이끌리는 절이 신정보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하겠다.

3.2 윤곽 설정의 원리

본고에서는 ‘-는데’절이 종속 연결절과 이질적인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해 ‘-는데’의 용법이 후행절 정보의 인지적 부담을 낮추고 후행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윤곽 설정의 담화적 기능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즉 ‘-는데’ 절은 후행 정보에 대한 주변 정보의 윤곽을 설정하고 후행 정보를 드러나게 하는 담화 효과를 나타낸다.

그런데 윤곽 설정의 방법은 단일한 것이 아니라 담화 맥락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윤곽이더라도 윤곽이 가져오는 담화 효과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는데’의 문맥 의미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윤곽이 설정되어 나타나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절에서는 ‘-는데’의 의미 분포를 기반으로 ‘-는데’에 의한 윤곽을 흑백 윤곽, 전체-부분 윤곽, 그리고 기준치 윤곽으로 나누어 보고, 각 윤곽에 나타나는 담화 효과를 살펴보겠다.⁴⁾

3.2.1 흑백 윤곽

흑백 윤곽은 후행 정보와 대비적인 정보를 주변 정보의 윤곽으로 설정함으로써 후행정보를 돋보이게 하는 원리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16) 가. 형은 마음씨가 착한데 동생은 고약하다.

나. 어제는 차가 많이 밀렸는데 오늘은 길이 한가하다.

위의 예문은 모두 후행절에 초점 정보가 실린 예문이다. 그런데 후행절 단독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보다 이에 대비되는 정보를 미리 제시함으

4) 여기에 제시된 윤곽 유형은 본고에서 독자적으로 분류한 것이다.

로써 후행정보의 의미가 보다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만일 위의 문장들이 모두 아래와 같이 연결어미 ‘-지만’으로 표현되었을 때와 비교해보자.

(17) 가. 형은 마음씨가 착하지만 동생은 고약하다.

나. 어제는 차가 많이 밀렸지만 오늘은 길이 한가하다.

위와 같이 ‘-지만’으로 연결되었을 때에는 선·후행절의 정보 가치가 대등한 관계에 놓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후행절의 순서가 뒤바뀌어도 논리적 가치에 변함이 없다.

(18) 가. 동생은 고약하지만 형은 마음씨가 착하다.

나. 오늘은 길이 한가하지만 어제는 차가 많이 밀렸다.

그런데 ‘-는데’로 연결된 문장은 정보의 초점이 후행절에 놓였기 때문에 (16)의 선·후행절의 순서를 아래 (19)와 같이 뒤바꾸어 표현한다면, 전달하려는 정보의 초점이 전혀 달라지고 (16)의 예문과는 전혀 다른 정보의 전달 효과가 나타난다.

(19) 가. 동생은 고약한데 형은 마음씨가 착하다.

나. 오늘은 길이 한가한데 어제는 차가 많이 밀렸다.

3.2.2 전체-부분 윤곽

두 번째로 후행 정보의 효율적 인지를 위한 담화 효과를 나타내는 데에 전체-부분의 윤곽 설정 원리를 들 수 있다. 후행정보가 포함된 전체적 정보를 앞서 제시함으로써 후행되는 정보의 인지적 부담을 덜게 하는 담화 전략이다. 즉 후행 정보가 소속되는 전체적 정보를 앞서 윤곽적으로 제시

하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0) 가. 그는 아들이 둘 있는데 하나는 경찰이고 하나는 군인이다.

나.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다. 서울 온 것이 10년이 넘는데 그동안 작품을 하나도 못 썼다.

(가)에서는 두 아들의 존재적 정보를 전체 정보로 앞서 제시함으로써 후행절의 두 아들에 대한 각각의 정보에 대한 인지적 부담력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나-다)에서도 후행절 사건이 포함되는 시간대의 사건을 앞서 제시함으로써 후행절 사건의 시간대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담화효과가 나타났다.

3.2.3 기준치 윤곽

기준치 윤곽은 후행 정보의 진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적 정보를 윤곽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후행 정보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적 정보를 앞서 제시함으로써 후행 정보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담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21) 가. 자네는 바쁜데 어서 가보게

나. 다들 떠나는데 우리도 가자

다. 일손이 모자란데 좀 도와주게

라. 그 약은 내가 써 봤는데 약효가 신통치 않다.

위의 예문 모두 후행절에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 있어서 후행절 정보 단독으로도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 그러나 후행절 단독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청자가 정보의 진위성에 대해 확신이 없는 것에 반해, (21)에서와 같이 가치 판단의 기준적 정보가 앞서 제시되는 경우에는 후

행 정보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담화효과가 나타난다.

4. 분석 결과와 학습자 오류에 대한 해석

이제 한국어 학습자들이 생산하는 ‘-는데’ 용법의 오류로 돌아가서 기존 분석 틀에 의한 설명 방식과 본고의 분석 틀에 의한 설명 방식을 비교해보자.

학습자들의 오류 유형은 배경 개념에 대한 구체성이 없어서 아무런 정보나 앞선 배경으로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여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 다음 예를 보자.

(22) 가. 그는 의사인데 병을 못 고쳐요.

나. *그는 군인인데 병을 못 고쳐요.

위의 예문에서 (가)와 (나)의 예문에 나타나는 적합성의 차이를 기존 분석에 따라 ‘-는데’의 배경 의미 관계로 설명하자면 (가)의 선행절은 후행절의 배경 관계이고, (나)의 선행절은 배경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순환 논리의 오류에 빠지는 셈이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대로 ‘-는데’의 용법을 후행절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담화 기능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담화 효과가 나타나는 운곽 정보의 설정 원리에 따라 (22)에 나타나는 적절성 차이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진다. 예컨대, (가)에서 ‘의사’라는 선행절 정보는 ‘병을 못 고친다’는 정보적 가치를 판단하게 하는 기준적 정보가 된다. 따라서 후행절이 담고 있는 정보 내용에 가치 판단을 높이는 담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나)에서 ‘군인’이라는 정보는 후행 정보의 가치 판단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서 기준적 정보가 될 수 없다. 이 때문에, (나)의 선행절 정보는 후행절 정보를 드러내는

담화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므로 윤곽 설정에 실패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학습자들이 보여주는 ‘-는데’ 오류 중에서 또 다른 유형의 전형적인 예는 다음과 같이 선행절이 후행절의 이유 의미로 나타나는 경우에 ‘-는데’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23) 가. *이 음식이 너무 짠데 맛이 없어요.

나. 이 음식이 너무 짜서 맛이 없어요.

대부분의 한국어교재에 ‘-는데’의 의미 기능으로 이유 제시의 용법이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위의 상황에서 ‘-는데’가 왜 부적절한가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러나 본고의 분석에 따르자면 ‘-는데’에 이끌리는 선행절 정보가 후행절 정보를 드러내는 담화효과를 위한 윤곽 정보로 제시된 것인가의 판별로 오류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예문 (23)에서는 선행절 정보가 후행절의 정보성을 높이기 위한 윤곽으로 설정된 정보가 아니라 선행절 정보에 초점이 놓여지는 신정보적 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선행절 정보가 후행절을 위한 윤곽 정보로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23가)의 예문을 다음의 예문과 비교해보자.

(24) 이 음식이 짜긴 한데 맛이 없어요.

(23가)의 선행절이 (24)에서처럼 변형되면 선행절 정보는 신정보로서의 초점 정보가 아닌 구정보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⁵⁾ 따라서 (24)의 선행절에 ‘-는데’ 표현이 허용되고, 후행절의 정보성을 높이는 기준치 윤곽 기능을 갖게 된다.

5) (24)의 문장이 적절한 경우는 화자가 짠 음식을 좋아한다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경우이므로 ‘음식이 짜다’는 정보가 구정보로 해석된다.

이번에는 ‘-는데’가 이유 제시의 연결어미와 대체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25) 가. 자네는 바쁘니까 어서 가보게.

나. 자네는 바쁘는데 어서 가보게.

(25)에서는 선행절이 (23)에서와 마찬가지로 후행절의 이유 제시 기능을 나타내고 있지만, ‘-는데’ 용법이 허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종속 연결어미 ‘-니까’ 대신에 ‘-는데’로 표현된 경우에는 선행절이 신정보적 전달 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후행절 정보의 진정성을 부각시키는 담화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는데’ 용법의 적절성은 선·후행절의 의미 관계의 적절성으로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선행절의 의미 기능이 후행절의 정보를 드러내는 담화 효과를 나타내는지의 여부로 판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교육 현장에서 ‘-는데’와 같은 문법요소에 대해 명시적 설명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담화분석적인 설명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5. 마무리

본고에서는 ‘-는데’의 의미 기능을 선·후행절의 맥락 의미로 분석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맥락 의미에 사용되는 연결어미 ‘-는데’를 관통하는 일관된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고에서 ‘-는데’는 선·후행절 사이의 의미 관계를 표현하는 연결어미들과 달리, 후행하는 정보의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담화 효과를 위해 주변적 정보를 앞서 윤곽으로 제시하는 담화 차원의 연결어미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

는 ‘-는데’가 다른 종속 연결어미들과 구별되는 통사적 특성을 갖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는데’가 후행 정보의 인지적 부담을 줄여주는 담화 효과를 갖기 위해 다음과 같은 윤곽 설정 원리가 작용되는 것으로 보았다. 첫 번째로 흑백 윤곽 효과의 원리이다. 후행정보와 대비되는 정보를 윤곽 정보로 설정함으로써 후행 정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는 담화 효과가 나타난다. 두 번째로 전체-부분의 윤곽 효과 원리이다. 후행 정보가 소속되는 전체적 정보로 윤곽을 설정하여 후행 정보에 대한 인지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준치의 윤곽 효과 원리이다. 이는 후행 정보의 진정성 판단에 기준치가 되는 정보를 윤곽으로 제시함으로써 후행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는 담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기존 분석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한국어학습자들의 ‘-는데’ 오류 문장을 본고의 분석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음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는데’가 연결어미 위치 외에 문장 종결어미의 용법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본고의 분석 범위에 넣지 않았으며 향후의 과제로 남기게 되었음을 밝힌다.

핵심어: 담화기능, 윤곽 효과, 윤곽 설정 원리, 흑백 윤곽, 전체-부분 윤곽, 기준치 윤곽

참고 문헌

- 강소영(2012), 오류분석을 통한 연결어미 지도 방안: 초급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남기심 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민윤숙(1995), 중학생들의 연결어미 오용사례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서정수(1994), 국어의 종속 접속문에 대하여, 구 『한국말교육』5집, 국제한국어교육학회, 3-30쪽.

성진선(200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연구: 연결어미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기동(1979), 연결어미 ‘-는데’의 화용상의 기능, 『인문과학』40집, 연세대 인문과학연구소, 117-144쪽.

이소현(2012), 한국어 연결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윤진(2002), 한국어 학습자의 연결어미 사용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영(1998), 한국어 연결어미의 교수 모형: ‘-는데’, 『한국어교육』9-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61-177쪽.

이효정(2001), 한국어 학습자 담화에 나타난 연결어미 연구, 『한국어교육』1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33-252쪽.

장경희(1995), ‘-는데’로 표현되는 배경과 모습 관계의 특성, 『한양어문연구』제13집, 한양어문연구회, 1103~1122쪽.

최주희(2013), 한국어교육을 위한 ‘-는데’의 핵심 기능과 사용상의 제약 고찰, 『영주어문』25, 133-163쪽.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허웅(1980), 『국어학』, 샘문화사.

Koffka, K. (1999), *Principles of Gestalt Psychology*, London: Routledge.

Pind J. L. (2014), *Edgar Rubin and Psychology in Denmar: Figure and Ground*,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Psychology, Switzerland: Springer International Publishing.

Talmy, L. (2000),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 1: *Concept Structuring Systems*, Massachusetts: MIT Press.

이숙(전주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주소: 56-759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전화번호: 063-220-2807

이메일: slee9941@jj.ac.kr

투고일: 2014. 7. 31.

심사일: 2014. 8. 11.~2014. 8. 22.

게재 결정: 2014. 8. 23.

Abstract**An Analysis on Discourse Function of a Conjunction ‘- *nundey*’ in Korean**

Lee, Sook
(Jeonju Universit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discourse function of the Korean conjunction ‘-*nundey*’. In Korean, ‘-*nundey*’ is among the most frequently used conjunction in making complex sentences.

Previous studies of ‘-*nundey*’ have focused on determining the contextual meanings between the antecedent and subsequent clauses connected by ‘-*nundey*’, but there has not been sufficient examination of the essential meaning of ‘-*nundey*’. It is also notable that the lack of the explanation of the usage of ‘-*nundey*’ has resulted in a high rate of erroneous usage of ‘-*nundey*’ among students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his paper proposed that ‘-*nundey*’ is used for the discourse effect in the way the subsequent information can be recognized efficiently.

Moreover, this paper seeks to explain the principles by which the discourse effect appears in the context information. The first is the principle of black-white frame in which the ‘-*nundey*’ clause explains the contrasting information that emphasizes the subsequent information. The second is the principle of whole-part frame in which the ‘-*nundey*’ clause shows the whole information which includes the subsequent information as a part, so that the subsequent information can be recognized efficiently.

The third is the principle of reference frame in which the ‘-munday’ clause plays a role of reference to judge the value of the subsequent information.
(200words)

Key words: discourse function, frame effect, principle of frame, black&white frame, whole-part frame, reference frame